

한국 부부간 공정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Perception of Equity in Marital Relationship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강사 박貞希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Lecturer : Jung Hee Park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It has been suggested that equity theory,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concerned with the fairness in casual relationships, should be applicable to marital relationships. This study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perception of equity, which measure the level of equity in marit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couples. PES(Perception of Equity Scale) is composed of two subscales ; detailed measure of equity(DME) and global measure of equity(GME). The PES, which include items from two areas of concern for intimates—psychological-emotional concern, day-to-day concern—are describes.

As results of test reliability of areas of DME range from .86 to .88, and reliability of GME is .92. And, there are primarily evidences of construct validity of PES. Therefore, PES is very reasonable scale to measure of equity/inequity perception in married couples. Finally, analyzing of the level of equity in this sample, husbands and wives has generally equitabl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tners. Another findings suggest that husbands are overbenefited of their patners through marriage, whereas wives are no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을 살펴볼 때,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수입정도, 주관적 계층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들과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성격유형 등과 같은 개인변수들의 영향력만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대한가정학회, 1990).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99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부부들의 보다 역동적인 관계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상호작용 변수들의 영향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부부관계의 상호작용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 중 최근 관심있는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이다. 부부간의 공평성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결혼생활을 통해 얻고 잃은 것이 배우자와 비슷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특히, 결혼관계 속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며 개인의 만족과 결혼생활의 안정은 서로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여권론적 가족관이 등장하면서,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조정문, 1995).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가치관 역시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부부관계 유형으로 “동반자적(partnership) 부부관계”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한경혜, 1994),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공평성에 대한 부부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수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관계의 공평성이 실제의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 보다는 공평성이 확보된 관계에서 친밀감, 관계몰입, 결혼만족 등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chafer & Patricia, 1981; Cate, Lloyd, Henton, & Larson, 1982; Michaels, Edward, & Acock, 1984; Cate, Lloyd, & Long, 1988; Sprecher,

1988; Vanyperen & Buunk, 1991; Ward, 1993; Hammond & Larson, 1996; Johnson & Jacob, 1997; 조정문, 1995).

반대로, 부부간의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우울, 분노, 죄의식, 디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Traupmann, Petersen, Utne, & Hatfield, 1981; Ross, Mirowsky, & Huber, 1983; Mirowsky, 1985; Sprecher, 1986, 1991; Schafer & Keith, 1980; Hegtvedt, 1990; Thomson, 1991; Glass & Fujimoto, 1994; Lennon & Rosenfield, 1994, Mirowsky & Ross, 1995; Longmore & DeMaris, 1997), 각 개인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과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berg, 1979, 1989; Schafer, Keith, & Lorenz, 1984; Schooler & Schoenbach, 1989; Gecas & Ray, 1992; Longmore & DeMaris, 1997).

그러므로, 부부관계 속에서 공평성이 확보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테이트 관계나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평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정문(1995)의 연구가 유일하며 가사노동의 공평성을 다룬 이미숙(1995)과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Traupmann 등(1981)은 이미 미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혹은 부부관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부부간 공평성”이라는 주제는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공평성 문제를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연구한 경우가 이제 막 시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간 공평성인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이 결혼생활을 통해 얼마나 공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rception of Equity Scale in marital relationship : PES)'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그들의 공평성 인지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의 공평성 인지실태는 어떠한가?

II . 이론적 배경

1. 공평성의 개념 및 이론

1) 공평성의 개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의 문제는 주로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Kahn & Gaedert, 1990). 20세기 중엽 이후, 투자한 것에 비례하여 보상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예: 기여, 경험, 기술 등) 가질수록 더 많은 것(예: 임금, 존경, 지위 등)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개념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비례성(proportionality)을 Homans(1961, 1974)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로, Adams(1965)는 "공평성(equity)"으로 각기 명명하였다.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공평성은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수행수준을 높여주는 반면, 불공평성은 불행감과 불만족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입에 대한 결과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비율보다 크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낮으면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결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거나 남보다 뭔가 더 잘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평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Kahn & Gaedert, 1990).

공평성 개념은 평등한 관계, 상대적 필요에 의한

관계, 그리고 공평한 관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홍대식, 1994), 평등한 관계란 개인의 투여 및 노력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성원들이 결과를 똑같이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공평한 관계는 개인이 투여한 노력에 비례하여 결과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한다. 상대적 필요에 의한 관계는 개인의 필요, 욕구수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만큼의 양을 분배하는 관계인데, 따라서 집단활동에 개인이 기여한 바가 적다 하더라도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더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조정문, 1995. 재인용).

최근 연구경향에 따르면 분배의 한 양식으로서 평등성 보다는 공평성이 선호되고 있는데, Sampson(1975)은 그 이유를 서구의 역사적·문화적 패턴,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개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의 영향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개인이 공평성 원리에 따를 것이냐 평등성 원리에 따를 것이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상호작용 목표, 기본적인 성향(경쟁이나 협조나), 정체성 및 성역할 사회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여러 개념적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공평성이란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한 규범유형으로, 관계형성을 위한 기여와 같은 개인의 투입요소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하여 그에 정당한 보상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공평성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적용시켜 볼 때, 부부간의 공평성이란 『남편 혹은 부인이 관계를 위해 노력한 정도와 그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가 배우자와 비교해 비슷한 경우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

공평성 이론은 인지부조화 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 바탕을 둔 것이다(Suitor, 1991). 즉, 인지부조화 이론에서는 투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긴장이 생기고 이러한 긴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동인이 나타난다고 보며, 교환이론에서는 인간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는 관계를 추구하는 이

기적 존재이므로 자신이 기여한 몫에 상응하는 댓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평성 이론은 인간의 사회관계는 서로간에 주고받는 것이 유사한 조건 속에서 맺어지고 지속된다는 Adams의 기본가설로부터 출발한 이론이다(Franklin, 1982).

공평성 규범에 의하면, 각 개인들은 상호간의 교환을 위해 학력, 능력, 노력, 경험, 나이, 기술 등 자신이 교환관계에서 투자라고 지각하는 모든 것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개인은 이와같은 교환관계로부터 칭찬, 지위, 만족, 금전적 보상 등과같이 자신이 보상이라고 지각하는 모든 것을 얻게된다. 이때 투입되는 요소들과 교환으로 얻는 결과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각각의 요소들은 개인의 상황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되어 진다(조문희, 1986).

Adams는 개인이 자기자신의 투입 및 결과를 자기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의 투입 및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공평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공평성의 개념은 다음의 도식과 같을 때 공평함을 느끼게 된다.

$$\frac{\text{사람 A의 결과들}}{\text{사람 A의 기여들}} = \frac{\text{사람 B의 결과들}}{\text{사람 B의 기여들}}$$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투입과 결과의 비율(Input/Output ratio)이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의 "투입-결과 비율(Input/Output ratio)"과 같을 때 성과의 분배가 공평하다고 지각하며, 이때 개인은 분배된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공평성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홍대식(1985)은 대부분의 공평성 연구에서 이들 공식들의 실제적 사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들 공식들은 공평성 개념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인 기호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특히 돈과 같은 물질적인 이득이나 입력들은 쉽게 수량화될 수 있지만, 심리적인 보수들, 부담들, 부채들은 신뢰롭게 수량화시키기가 훨씬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공평성 이론이 개발되고 정교

화 되었으나, 친밀한 혹은 낭만적 관계에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초기 공평성 연구자들은 인간이 실험실 상황에서 불공평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언제, 어떤 시도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불공평성이 어떻게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Michaels et al., 1984).

2. 부부간 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부부간 공평성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수가 있다. 첫째는 부부관계의 공평성 혹은 불공평성이 그들의 관계의 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Schafer & Keith 1980; Traupmann, Petersen, Utne, & Hatfield, 1981; Cate, Lloye, Henton, & Larson, 1982; Ross, Mirowsky, & Huber, 1983; Michaels, Edward, & Acock, 1984; Mirowsky, 1985; Sprecher, 1986, 1988, 1991; Cate, Lloyd, & Long, 1988; Hegtvedt, 1990; Vanyperen & Buunk, 1991; Ward, 1993; Glass & Fujimoto, 1994; Lennon & Rosenfield, 1994; Mirowsky & Ross, 1995; Hammond & Larson, 1996; Johnson & Jacob, 1997; Longmore & DeMaris, 1997; 조정문, 1995)이다.

두 번째는 개인 및 가족관계의 여러 양상들을 공평성 이론으로 검증한 연구들(Davidson, Balswick, & Halverson, 1983; Davidson, 1985; Mirowsky, 1985)이며,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족유형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가족에 있어서 가사노동 부담의 공평성이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Blair & Johnson, 1992; Coltrane, 1990; Maret & Finaly, 1984; Thomson, 1991; Yogev & Brett, 1985; 이미숙, 1995; 문숙재 · 허경옥 · 홍윤정, 1997)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부부관계의 공평성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의 두 연구유형은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Peterson(1981)은 공평성 인지와 낭만적 관계의 지속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공평성이 비례성(proportionality)과 평등성(equality)의 두 유형을 포괄하는 개

넘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비례성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지만 그에 부합하여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말하고, 평등성이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기여하고 똑같은 것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의 연구결과, “비례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평등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 보다 행복수준이 높고 체계가 안정적임을 발견하였다.

기혼부부 162쌍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공평성/불공평성 인지와 부부적응간 관계를 살펴본 Davidson(1984)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대한 불공평성 지각은 결혼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te 등(1988)은 공평성을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를 이용해 파트너의 보상과 비용을 측정하였는데, 공평성 변수가 그들 관계만족의 37%나 되는 설명변량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Vanyperen과 Buunk(1991)는 부인들은 남편의 투여와 산출을 자신과 비교하기 보다는, 이웃 여성들의 결혼생활과 자신의 결혼생활을 비교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평성 이론을 부부관계에 처음 적용한 조정문(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생활을 대체로 공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편들 보다는 부인들이 자신이 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평성 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Cate 등(1982)과 Michaels 등(1984)은 연애크플을 대상으로 공평성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동등성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이 두 효과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애관계에서 공평한 관계의 대부분이 동등한 관계였으며, 또한 동등한 관계의 대부분 역시 공평한 관계로서 이 둘 간의 상관계수가 .89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애크플의 경우 공평성이나 동등성의 확보 보다는 관계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보상적인가가 더 중요시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평성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들은 부부간 공평성이 유지되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며, 이와 반대로 공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결과들과는 달리, 공평성 여부 보다는 관계 그 자체가 주는 의미를 통해 관계가 발전해 나간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어, 공평성과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부간 공평성 측정도구

친밀한 관계 혹은 부부관계의 공평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평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개 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차원 척도를 사용했거나(Schafer, Keith, & Lorenz, 1984; Blair & Johnson, 1992; Longmore & DeMaris, 1997), Traupmann, Petersen, Utne과 Hatfield(1981)에 의해 개발된 공평성/불공평성 척도(E/I Scale)를 사용한 연구로는 Sprecher(1986, 1988)와 Hammond & Larson(1996)의 연구가 있다.

친밀한 관계의 공평성 측정을 위해 Traupmann 등(1981)은 공평성/불공평성 척도(E/I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혼의 커플 혹은 부부들의 공평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총 26문항의 척도로, 전반적인 공평성을 측정하는 1개 문항과 세부적인 공평성을 측정하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단일차원 척도와 다차원 척도의 장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세부적인 공평성 측정을 위한 하위영역은 사적인 측면, 정서적 측면, 일상적인 측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3에서 +3까지 7점 Likert형 척도이다. -3에서 부터 -1까지를 ‘배우자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underbenefited)’, +1에서 부터 +3까지를 ‘배우자로 부터의 유리한 대우(overbenefited)’, 0은 ‘서로 비슷한 정도의 대우’로 각기 정의하였다. 세부적인 공평성 측정치의 내적일치도 타당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문(1995)은 Vanyperen과 Buunk(1991)의 연구를 기초로,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계적 공평성 1문항과 준거적 공평성 1문항을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평성은 “현재의 결혼생활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내가 훨씬 더 손해’, ‘내가 약간 더 손해’, ‘서로 비슷’, ‘남편/아내가 더 손해’, ‘남편/아내가 훨씬 더 손해’의 다섯 가지의 유목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준거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 부부간의 주고받음(정신적·물질적인 면)을 주위 친구들과 비교하면 다음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주위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 ‘주위 친구들이 좋은 조건’, ‘비슷한 조건’, ‘자신이 약간 좋은 조건’, ‘자신이 훨씬 좋은 조건’의 유목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정문(1995)은 제언을 통해, 부부간 공평성에 대한 후속연구들은 공평성 측정방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평성 측정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공평성 인지”로, 전반적인 이익과 손해를 부부중 누가 더 많이 보는가를 물어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총체적 측정(global measure)으로, 남편이 결혼생활에 기여하는 정도와 만족정도를 각각 물어 남편의 기여에 대한 만족비율을 부인의 기여에 대한 만족비율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합산적 측정(summated measure)”으로, 부부 각각의 기여와 만족정도를 묻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Michaels 등(1984)은 그들의 연구에서 공평성 인지 측정과 합산적 측정을 모두 사용하여 공평성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공평성 인지 측정을 사용했을 때 공평한 관계는 48.0%에 달했으나 합산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는 그 비율이 9.2%로 감소되었음을 밝혔다. 이와같이 공평성 정도는 측정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조정문(1995)은 이런 부분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1998년 2월 17일에서 27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 신혼기 부부부터 5,60대 중년기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 각각 60부였으며, 그 결과 총 10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기초로 신뢰도를 구하면 결과 남편과 부인의 Cronbach' α 값이 각각 .72와 .76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비교적 만족할 만하였다. 다만,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설문지 문항을 약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수정된 설문지를 가지고, 1998년 3월 16일 부터 2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E유치원 학부모 220쌍과 K여중 학부모 160쌍, 그리고 K대학에서 『결혼과 가족』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부모 180쌍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이렇게 해서 배부된 설문지는 총 560쌍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응답이 많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편 323부, 부인 365부(총 688부)가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2. 척도의 구성

1) 척도구성 절차

우리나라 부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S : Perception of Equity Scale in marital relationship)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공평성 이론의 주요 원리들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기본구조와 문항을 선정하였다. 특히, Traupmann 등(1981)에 의해 개발된 공평성/불공평성 척도(E/I Scale)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절차에 따라 PES를 구성하였다.

먼저, PES는 세부적인 공평성 측정치(DME : Detailed Measure of Equity)와 전반적인 공평성 측

정치(GME : Global Measure of Equity)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구성한 이유는 부부관계의 공평성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평가척도 뿐 아니라 세부적인 평가척도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Michaels 등(1984)의 연구결과와, Traupmann 등(1981)의 기본구조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DME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즉, “귀하는 부부가 서로 공평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를 기초로, 감정표현, 관심·이해, 배려, 애정표현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영역’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경제 및 소비활동, 친족관계 등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의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심리·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와 Traupmann 등(1981)의 공평성/불공평성 척도(E/I Scale) 문항중 부부의 정서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사회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문항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상생활 영역’의 하위 범주 역시 예비조사 결과와 정무(제2)장관실에서 발행한 ‘평등한 부부 토론회’ 내용중 평등한 부부의 평가범주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8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공평성 측정을 위한 DME의 두 하위범주는 부부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뿐 아니라 결혼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생활양식 모두를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부부간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는데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항을 배열할 때 DME 문항을 먼저 평가하고 GME 문항은 나중에 평가토록 하였는데, 이는 부부관계의 재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해 본 후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경희대학교 가족학연구실을 통해 문항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2) 문항내용 및 응답유목

① 세부적인 공평성 인지척도(DME)

앞서 살펴본 “부부간의 공평성”에 대한 정의와 공평성 이론의 원리를 기초로, “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평소 결혼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귀하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도록 DME를 구성하였다. DME는 유목척도로서, ‘남편/부인이 훨씬 더 그렇다’, ‘남편/부인이 약간 더 그렇다’, ‘서로 비슷하다’, ‘내가 약간 더 그렇다’, ‘내가 훨씬 더 그렇다’의 총 5개 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응답범주들은 Schafer 등(1984), Blair와 Johnson(1992), Longmore와 DeMaris(1997), Traupmann 등(1981), Sprecher(1986, 1988), 그리고 Hammond와 Larson(199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남편/부인이 훨씬 더 그렇다’와 ‘남편/부인이 약간 더 그렇다’는 ‘배우자로 부터의 유리한 대우(overbenefited)’, ‘서로 비슷하다’는 ‘공평한 대우(equitable)’, ‘내가 약간 더 그렇다’와 ‘내가 훨씬 더 그렇다’는 ‘배우자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underbenefited)’로 각기 정의하였다.

② 전반적인 공평성 인지척도(GME)

GME는 Schafer 등(1984), Blair와 Johnson(1992), 그리고 Longmore와 DeMaris(1997)의 연구에서와 같은, 부부 각각이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평가 척도이다. 즉, “귀하가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잃거나 얻는 것을 남편이 잃거나 얻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부부관계는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GME의 응답범주는 DME와 같다.

3. 분석방법

본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SAS-pc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MES가 우리나라 부부들의 공평성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산출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하위척도들에 대한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공평성 인지실태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집된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37.5%이고 부인의 경우 52.1%로 나타나 남편 보다는 부인이 종교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166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27.8%), 단순기능직(7.5%), 전문직(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5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취업한 주부의 비율도 3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고졸이 153명(47.3%), 전문대 및 대졸이상이 133명(41.2%),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7명(11.5%)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에도 고졸이 278명(76.1), 전문대 및 대졸이 77명(21.1%), 대학원 이상이 10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남편의 학력이 부인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부부들의 결혼지속년수를 살펴보면, 10년 이하가 48.5%로 가장 많았고, 11년에서 20년 사이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N=256, 37.2%), 21년 이상이 98명(14.2%)로 가장 적었다. 자녀수는 2명이 443명으로 64.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명과 3명 이상은 각기 15.5%, 19.6%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볼 때,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40명(5.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0~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각각 40.1%, 32.2%, 21.7%로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인 경제생활 만족정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2.9%가 중 정도의 만족수준을 나타냈고, '상'이 14.7%, '하'가 1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결혼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초혼이었으며(N=657, 96.9%) 결혼 후 별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독신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재혼한 경우는 21명(3.1%)이 조사되었다.

2. 연구문제 1 : 타당도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S)'가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공평성 양상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속성을 재는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임을 의미하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PES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하위영역과 각 문항간 상관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심리·정서적 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8개 문항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38에서 .59에 이르기까지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28에서 .56에 이르기까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DME의 두 하위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각 8개 문항간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들의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임이 밝혀졌다.

3. 연구문제 2 : 신뢰도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S)'가 우리나라 부부들의 공평성 정도를 얼마나 일관성있게 측정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일치도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N(%)

특 성	성 별		전 체 (N=688) ¹⁾
	남편 (N=323)	부인 (N=365)	
종 교			
있 음	121 (37.5)	190 (52.1)	311 (45.2)
없 음	200 (61.9)	173 (47.4)	373 (54.2)
직 업			
무 직/전업주부	1 (0.3)	206 (57.5)	207 (30.6)
단순 기능직	24 (7.5)	31 (8.7)	55 (8.1)
판매·서비스직	89 (27.8)	59 (16.5)	148 (21.9)
사무·관리직	166 (51.9)	36 (10.1)	202 (29.8)
전문 직	21 (6.6)	5 (1.4)	26 (3.8)
학 력			
고 졸	153 (47.3)	278 (76.1)	431 (62.6)
전문대졸/대졸	133 (41.2)	77 (21.1)	210 (30.5)
대학원 이상	37 (11.5)	10 (2.7)	47 (6.8)
결혼 년수			
10년 이하	163 (50.5)	171 (46.8)	334 (48.5)
11~20년	115 (35.6)	141 (38.6)	256 (37.2)
21년 이상	45 (13.9)	53 (14.5)	98 (14.2)
자 녀 수			
1명	48 (15.0)	58 (16.0)	106 (15.5)
2명	213 (66.6)	230 (63.4)	443 (64.9)
3명 이상	59 (18.4)	75 (20.7)	134 (1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4.7)	25 (7.1)	40 (5.9)
100~200만원 미만	128 (39.8)	143 (40.4)	271 (40.1)
200~300만원 미만	101 (31.4)	117 (33.1)	218 (32.2)
300만원 이상	78 (24.2)	69 (19.5)	147 (21.7)
경제생활 만족도 ²⁾			
상	47 (14.6)	52 (14.7)	99 (14.7)
중	242 (75.4)	250 (70.6)	492 (72.9)
하	32 (10.0)	52 (14.7)	84 (12.4)
결혼 형태			
초 혼	313 (97.8)	344 (96.1)	657 (96.9)
독신 ³⁾ /재혼	7 (2.2)	14 (4.0)	21 (3.1)

주 : 1) 무응답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례수와 백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경제생활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점에서 3점에 응답한 경우는 '하'로, 4점에서 7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중'으로, 8점에서 10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상'으로 recode함.

3) 독신이란 결혼 후 별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함.

〈표 2〉 DME의 하위척도와 각 문항간 상관계수(r)

구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남편	부인
심리·정서적 영역	1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자기감정을 잘 나타낸다.	.38	.46
	2	배우자의 관심사와 정서적 욕구를 알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59	.53
	3	배우자가 부모나 친구, 아이같은 행동을 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44	.51
	4	입맞춤이나 포옹하기와 같은 애정표현을 잘 한다.	.53	.45
	5	배우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	.54	.51
	6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49	.50
	7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계획한다.	.49	.45
	8	생일, 결혼기념일 등과 같은 의미있는 날을 잘 챙긴다.	.44	.43
일상생활 영역	9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의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33	.41
	10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참여한다.	.50	.56
	11	가계의 총소득에 일정분 기여한다.	.36	.27
	12	생활비 외에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	.28	.29
	13	부부공동 활동을 제안하거나, 서로가 흥미있어 하는 일에 따른다.	.53	.48
	14	하루일과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41	.47
	15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척들과 잘 지낸다.	.52	.48
	16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50	.51

(internal consistency)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DME의 하위영역인 심리·정서적 영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남편과 부인의 α 값이 각각 .88과 .87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87과 .86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DME의 두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의 공평성 인지도 측정을 위한 GME 척도는 남편의 경우 .91, 부인의 경우 .92로 나타나, GME 척도 역시 매우 만족할 만한 신뢰도가 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90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던 Traupmann 등 (198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S)'는 DME와 GME 두 하위척도 모두에서 우리나라 도시 부부들의 공평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적절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

〈표 3〉 PES의 신뢰도 계수(α)

	세부적인 공평성(DME)		전반적인 공평성(GME)
	심리·정서적 영역	일상생활 영역	
남편	.88	.87	.91
부인	.87	.86	.92
계	.88	.88	.92

4. 연구문제 3 :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의 공평성 인식실태

1) PES에 의한 부부간 공평성 인식실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ES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의 남편들과 부인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통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DME와 GME로 나누어 측정해 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심리·정서적 영역에서의 조사대상 부부들

〈표 4〉 PES에 의한 남편과 부인의 공정성 인지실태

단위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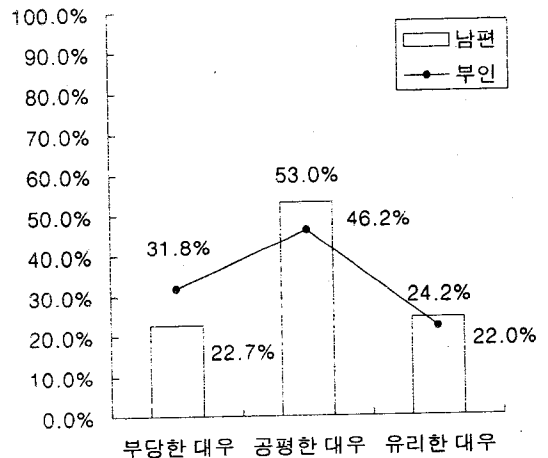
구분 ¹⁾	세부적인 공정성(DME) ²⁾		전반적인 공정성(GME) ³⁾	
	심리·정서적 영역	일상생활 영역		
부당한 대우	남편	582 (22.7)	496 (19.5)	28 (9.0)
	부인	917 (31.8)	937 (34.3)	116 (34.4)
공평한 대우	남편	1,358 (53.0)	1,398 (54.8)	152 (48.9)
	부인	1,333 (46.2)	1,304 (47.6)	162 (48.1)
유리한 대우	남편	620 (24.2)	655 (25.7)	131 (42.1)
	부인	635 (22.0)	496 (18.1)	59 (17.5)
계	남편	2,560 (100.0)	2,549 (100.0)	311 (100.0)
	부인	2,885 (100.0)	2,737 (100.0)	337 (100.0)

- 주 : 1)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남편/부인이 훨씬 더 그렇다’와 ‘남편/부인이 약간 더 그렇다’는 ‘유리한 대우(overbenefited)’, ‘서로 비슷하다’는 ‘공평한 대우(equitable)’, ‘내가 약간 더 그렇다’와 ‘내가 훨씬 더 그렇다’는 ‘부당한 대우(underbenefited)’로 각기 구분하였다.
 2) DME는 각 영역별 8개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를 모두 더한 사례수임.
 3) GME는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후 백분율을 구함.

의 공정성 인지실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53.0%, 부인의 46.2%가 대체로 그들간 심리·정서적 관계측면에 대해 공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들이 부인들 보다 심리·정서적 관계에서 공평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또한, 유리한 대우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는 부인의 비율(31.8%)이 남편의 비율(22.7%)보다 높게 나타나 부인들이 남편들 보다 심리·정서적 관계영역에서 그들의 배우자로 부터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또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느끼는 공정성 정도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비율이 54.8%로 가장 많았고, 유리한 대우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비율이 각각 25.7%와 1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는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비율이 47.6%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54.8%) 보다 더 낮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34.3%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19.5%) 보다 팔목할만하게 높았다(〈그림 2〉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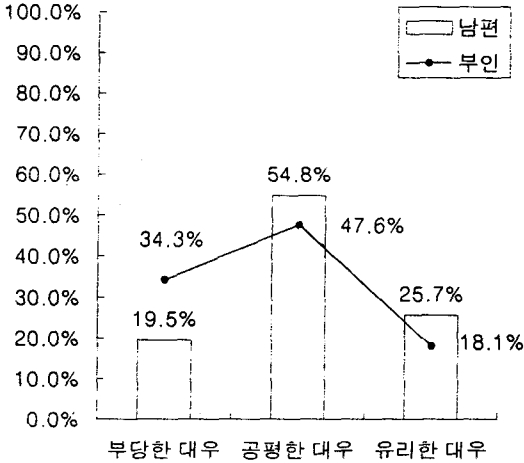
〈그림 1〉 남편과 부인의 심리·정서적 공정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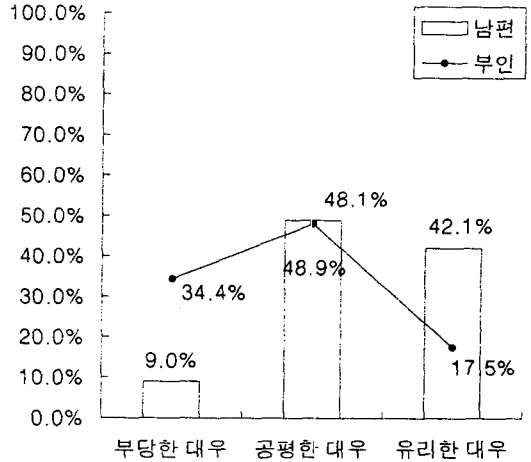
조).

한편,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공정성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비슷한 정도(남편=48.9%, 부인=48.1%)로 공평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조정문(199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결혼한지 5년

〈그림 2〉 남편과 부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정성 정도



〈그림 3〉 남편과 부인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정도



이내의 신혼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남편의 69.2%, 여성의 70.3%가 공평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부간 공평성 인지수준은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어느정도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정성에서와는 달리, 남편의 42.1%가 그들의 결혼관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9.0%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는 34.4%가 그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9명(17.5%)만이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서와는 달리, 남편의 42.1%가 그들의 결혼관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했다(〈그림 3〉 참조).

각 문항별로 남편과 부인의 공정성 정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심리·정서적 영역에서는 남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감정표현이나 관심 등에 있어서 부인으로 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으나, 부인의 경우는 애정표현에 있어서만 유리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높았고 감정표현, 이해, 인정/수용, 관심 등에 있어서는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각 둔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남편들은 소비생활, 여가활동, 의사소통, 친척관계,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배우자로 부터 비교적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생각되어 지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영역에서는 유리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각각 63.9%와 45.3%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몫으로 생각되어 지는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나 되었다.

한편, 부인의 경우는 소비생활, 여가활동, 의사소통, 친척관계,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비교적 배우자로 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영역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제활동 및 소비생활 영역에서는 각각 52.5%와 28.1%가 배우자로 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응답했다.

2) DME와 GME에 의한 공정성 인지실태 비교

조사대상 부부들로 하여금 먼저 세부적인 공정성에 대해 응답케 한 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정도를 평가해 보도록 한 결과, DME 결과와 GME 결과 간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DME에 의한 부부간 공정성 양상을 살펴

<표 5> DME에 의한 남편과 부인의 공평성 인지실태¹⁾

단위 : N(%)

구 분	남 편			부 인			
	부당한 대우	공평한 대우	유리한 대우	부당한 대우	공평한 대우	유리한 대우	
심리·정서적 영역	감정표현	53 (16.5)	169 (52.5)	100 (31.0)	175 (48.1)	121 (33.2)	68 (18.7)
	이해	58 (18.1)	179 (55.9)	83 (25.5)	115 (31.6)	192 (52.7)	57 (15.7)
	인정/수용	82 (25.8)	165 (51.9)	71 (22.3)	98 (27.9)	165 (47.0)	88 (25.1)
	애정표현	89 (27.2)	158 (49.2)	74 (23.1)	79 (21.9)	148 (41.1)	133 (36.9)
	관계몰입	92 (28.2)	174 (54.4)	54 (16.9)	112 (31.3)	188 (52.5)	58 (16.2)
	배려	76 (23.8)	176 (55.2)	67 (21.0)	114 (31.4)	170 (46.8)	79 (21.8)
	미래계획	82 (25.7)	184 (57.7)	53 (16.6)	93 (26.0)	201 (56.1)	64 (17.9)
	관심	50 (15.6)	153 (47.7)	118 (36.8)	126 (34.8)	148 (40.9)	88 (24.3)
일상생활 영역	가사노동	12 (3.8)	103 (32.3)	204 (63.9)	264 (72.3)	66 (18.1)	12 (3.8)
	자녀양육	24 (7.5)	151 (47.2)	145 (45.3)	201 (55.2)	126 (34.6)	24 (7.5)
	경제활동	165 (52.5)	129 (41.1)	20 (6.4)	41 (11.5)	115 (32.3)	165 (52.5)
	소비생활	88 (28.1)	194 (62.0)	31 (9.9)	63 (17.8)	192 (54.2)	88 (28.1)
	여가활동	45 (14.0)	232 (72.3)	44 (13.7)	60 (16.8)	240 (67.0)	45 (14.0)
	의사소통	30 (9.5)	194 (61.2)	93 (29.3)	142 (39.3)	174 (48.2)	30 (9.5)
	친척관계	37 (11.5)	222 (68.9)	63 (19.6)	91 (25.0)	213 (58.5)	37 (11.5)
	의사결정	95 (29.4)	173 (56.3)	55 (17.0)	75 (20.6)	178 (48.9)	95 (29.4)

주 : 1) 남편과 부인의 사례수 및 백분율은 무응답 사례가 있으므로, 각 유목별로 일치하지 않음.

면, 각 영역별 및 각 문항별로 남편과 부인간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부인들 보다 더 공평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심리·정서적 영역 보다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배우자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관한 문항중에서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경제활동과 같은 성역할 구분이 뚜렷한 문항에서는 부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남편은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ME에 의한 공평성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의 공평성 인지양상을 매우 간략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 남편과 부인들의 과반수 정도가 그들 관계를 공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관계를 통해 배우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지각한 남편들의 응답비율이 42.1%인 반면, 부인의 경우는 17.5%만이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결

혼생활을 통해 부당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편의 경우 9.0%, 부인의 경우는 34.4%나 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결혼생활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잃으며 남편들은 부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DME에 의한 공평성 측정 결과와 GME에 의한 공평성 측정 결과는 일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비율적인 차원에서는 GME에 의한 측정결과가 DME 보다 더 뚜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체적 측정과 합산적 측정을 모두 사용해 두 측정치간의 공평성 수준을 비교한 Michaels 등(198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DME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역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PES를 사용해 부부간 공평성 인지양상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에는, DME를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부부관계 양상을, GME를 통해서는 부부 각자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공평성에 대한 통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ES를 이용해 부부간 공평성을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연구자가 어떤 것에 관심이느냐에 따라 DME나 GME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관심있는 부부간 상호작용 변수인 부부관계의 공평성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부부간의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부부관계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공평성을 측정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회정서와 어울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 이론의 기본개념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공평성 측정도구들을 중심으로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PES)'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척도가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의 관계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 도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혼남녀 6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조사를 실시한 후, 본 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공평성 인지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ES 척도가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공평성 양상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DME의 두 하위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각 8개문항간 상관인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ES 척도는 우리나라 남편과 부인들의 공평성 측정을 위한 매우 타당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ES 척도가 우리나라 부부들의 공평성 정도를 얼마나 일관성있게 측정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PES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인 DME와 GME 모두에서 각각 .88과 .92로 나타났다. 따라서, PES는 DME와 GME 두 하위척도 모두 우리나라 도시부부들의 공평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본 척도를 통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통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조사대상 남편 및 부인들은 48% 정도가 그들 관계를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신혼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경문(1995)의 연구에서 보다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앞으로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공평성 변화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남을 것이다. 또한, 심리·정서적 영역 보다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문항에서는 부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과 같은 문항에서는 남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 공평한 관계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남편들은 우선 부인들의 몫으로만 남겨두었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교육 활동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인들은 남편들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결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PES의 두 하위척도인 DME와 GME의 유용성 파악을 위해, 두 척도에 의한 공평성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척도 모두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판명되었으나, DME는 보다 구체적인 관계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GME는 부부 각자가 결혼생활을 통해 갖는 공평함에 대한 통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MES를 이용해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자로 주로 어떤 것에 관심있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즉, 공평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도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부부간 공평성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 혹은 잃었는지를 따져 본다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회정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PES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작업을 통해, 앞으로 내용 및 구성면에 있어서 많은 보완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대한가정학회(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 아동학·가족학. 서울:교문사.
-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 이미숙(1995).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공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 정무장관(제2)실(1994). 민주적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평등한 부부' 토론회. 정무장관 (제2)실.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열린사회와 가족』. 한국여성개발원.
- 홍대식(1985). 사회심리학이론. 서울 : 박영사.
- 홍대식(1994). 사회심리학. 서울 : 양영각.
- Blair, S. L. & Johnson, M. P.(1992). Wive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the intera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54, 570-581.
- Cate, R. M., Lloyd, S. A., Henton, J. M. & Larson, J. H.(1982). Fairness and reward level as predictor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 177-81.
- Coltrane, S. & Ishii-Kuntz, M.(1992). Men's housework ;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Davidson, B., Balswick, J., & Halverson, C.(1983). Affective self-disclosure marital adjustment ; a test of equit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93-102.
- Davidson, B.(1984). A Test of Equity Theor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36-42.
- DeMaris, A. & M. A. Longmore(1996). Ideology, Power, and Inequity ;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ur. *Social Forces* 74, 1043-71.
- Glass, J. & Fujimoto, T.(1994). Housework, paid 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179-91.
- Hammond, C. H. & Larson, J. H.(1996). Equity and intimacy in marriage. Poster presentation.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79th Annual Conference, Kansas City, MO.
- Hegtvedt, K. A.(1990). The effects of relationship structure on emotional responses to inequ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214-28.
- Kahn, A. S. & Gaeddert, W. P.(1990). From theories of equity to theories of justice ; the liberating consequences of studying women. in Perelberg, R. J. & Miller, A. C.(1990). Gender and Power in Families, Tavistock, 129-148.

- Lennon, M. C. & Rosenfield, S.(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 the importance of op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506-31.
- Longmore, M. A. & DeMaris, A.(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72-184.
- Michaels, J. W., Edwards, J. N. & Acock, C.(1984).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Inequity, inequity, and outcom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4), 347-57.
-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92.
- Peterson, C.(1981). Equity, Equality, and Marriag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283-284.
- Schafer, R. B. & Keith, P. M.(1980). Equity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0-35.
- Schafer, R. B. & Keith, P. M.(1981). Equity in marital ro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9-367.
- Schafer, R., Keith, P. M., & Lorenz, F. O.(1984). Equity/inequity and the Self-concept : An interactionist analysi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42-49.
- Sprecher, S(1986). The Relation between Inequity and Emotions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4), 309-21.
- Sprecher, S(1988). Investment model, equity,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4), 318-28.
- Sprecher, S.(1991). How men and women expect to feel and behavior in response to inequity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57-69.
- Sprecher, S. & Schwartz, P.(1994). Equity and balance in exchange of con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 Justice in Close Relationships*. edited by M. J. Lerner & G. M. Mikula, New York ; Plenum.
- Suitor, J.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21-230.
- Thomson, L.(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81-196.
- Traupmann, J., Petersen, R., Utne, M., & Hatfield, E. (1981). Measur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467-480.
- Ward, R. A.(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27-38
- Vanyperen, N. W. & Buunk, B. P.(1991). Sex-role attitudes, social comparison, and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169-180.
- Yogev, S. & Brett, J.(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